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 대조기 기간 고조 시간에 집중호우와 겹쳐 해수면 상승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8일부터 21일 그믐 대조기 기간의 고조 시간 전·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고조 시 평소보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해양조사원)은 내일까지 충청권,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기상의 영향으로 고조 시간에 실제 해수면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조사원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전달하였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실시간 조위정보 확인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 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조기 고조 시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침수로 인한 조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정현 (051-400-4106)
		담당자	팀 장	한정식 (051-400-4380)

참 고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화면

